



## 브라질 · 멕시코

# 양국간 新무역협정 체결

2002년 7월 3일 브라질의 카르도주 대통령과 멕시코의 폭스 대통령은 양국간 新 무역협정<sup>1)</sup>(new trade accord)에 공식 조인했다. 동 무역협정에 의해 브라질과 멕시코간 교역량은 3년 내에 현재보다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여타 회원국들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협정 체결의 배경

브라질과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회원국으로 오래 전부터 기존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의 체결을 논의하여 왔으나, 주로 브라질 쪽의 불만 요인 때문에 1997년 체결

을 목표로 진행되던 양측간 협상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브라질 정부는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이 라틴아메리카의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멕시코 혼자만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또한, 화학과 석유화학 등 분야의 브라질 기업들도 관세 인하로 멕시코산 상품이 자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신들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동 협정의 체결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브라질은 2001년 이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이 저너뒀기 때문 66% 이상 감소함에 따라 대체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멕시코 역시 對 브라질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남미 시장의 중심국가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모색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1) 동 협정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통해 교역 증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라기보다는 협의의 무역협정임.

---

배경에서 지난 7월 3일 폭스 대통령의 브라질리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신무역협정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관세 인하가 주요 내용으로 우리 수출에 타격 예상**

동 무역협정의 핵심은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관세 인하이다. 양국은 모두 792개 품목에 대해 현행 수입관세를 품목별로 20%에서 100%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중 641개 품목은 공산품이고 151개 품목은 농수산 가공품이다. 현재 26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량은 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에 힘입어 3년 내에 45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 협정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MERCOSUR 회원국간 정상회담 기간 중 브라질·멕시코 양국간에 자동차 협정이 체결되어, 향후 12개월 동안 1.1%의 낮은 관세로 상호간에 14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간 합의한 쿼터를 초과할 경우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006년까지 쿼터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브라질의 對멕시코 자동차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사용파울루사무소】**